

# 토목·건축 통해 본 로마제국의 번영과 몰락

“로마가 남긴 것들을 보자. 지금 봐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로마의 수도는 취수, 이용, 배수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상수도 시스템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 로마의 방식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하수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상수도의 잉여수를 사용해 분노를 강으로 배출하는 방식을 지금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다른 점이라면 현재는 여과 기술이 적용된다는 것 정도. 그리고 지금은 빗물과 하수를 분리해 처리하지만 그 당시에는 합류 방식이라는 것. 로마의 공공 욕장도 대부분 그대로 전해졌다. 각지에 만들어진 대형 욕장은 오늘날의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본문 중에서)



## 빵과 서커스

나카가와 요시타카 지음, 임해성 옮김

들이 행복한 시대를 보내며 오락과 문화를 즐길 수 있었던 근간은 무엇일까. ‘빵과 서커스’로 천년을 군림했던 로마 이야기가 책으로 발간됐다. ‘수로로 보는 고대 로마 번영사’의 저자이자 도쿄대 교수인 나카가와 요시타카가 펴낸 ‘빵과 서커스’는 ‘토목·건축의 관점에서 다시 살피는 로마 이야기’다. 저자는 빵과 서커스의 제국 로마의 흥망성쇠를 건축, 교량, 도로 등 유산을 통해 조명한다. 책에 대해 ‘남아 있는 것들로 살피는 사라진 로마’라는 평가가 따르는 이유다.

‘빵과 서커스’는 로마가 시민들에 제공한 식량, 오락, 휴식거리를 의미한다. 오늘날로 치면 포퓰리즘의 대명사다. 고대 로마의 시인 테키무스 유니우스 우웨날리스는 이렇게 말했다. “시민들은 로



고대 로마의 식민 도시였던 프랑스의 남에는 풍 뒤 가르 수도교가 있다. 3층 석조 아치교인 이 다리는 규모의 장대함 때문에 건설 당시 '악마가 만든 다리'라는 소문이 있었다. <예문아카이브 제공>

## 포퓰리즘 상징 ‘빵과 서커스’로 천년 군림했던 로마 이야기

### 교량·도로·수도 등 유형 유산 통해 고찰

### 2000년을 견뎌낸 남아 있는 것들로 살피는 ‘사라진’ 로마

마가 제정이 되면서 투표권이 사라지자 국정에 대한 관심을 잃었다. 과거에는 정치와 군사의 모든 영역에서 권위의 원천이었던 시민들이 이제는 오매불망 오직 두 가지만 기다린다. 빵과 서커스를.” 책에서 다루는 고대 로마 유산은 대부분

2000년의 시간을 견뎌냈다. 자연적 재해와 인위적 파괴까지 견뎌 인류의 보고다. 고대 로마와 관련된 세계 유산 66건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인근 나라에 산재한다. 특히 로마의 건축 기술은 매우 뛰어나다. 콘크리트는 로마의 발명품이었으며 판

태운 대형 돔은 베드로 대성당이나 산타 마리아델 피오레 대성당의 돔 등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당대 건설된 가도는 지금의 이탈리아 국도나 유럽 각국의 국도 기반이 됐다. 공급지와 소비지를 선박으로 연결한 로마의 해도 역시 오늘에까지 계승됐다. 그 뿐 아니다. 오늘날 문서화와 표준화, 정보 관리 등 네트워크 구축과 기술 관리 또한 당시 로마가 이룩한 위대한 업적이다. 그런데 왜 로마제국은 몰락했을까? 빵과 서커스 상징되는 오락과 쾌락이 원인 이 아니었을까. 저자는 많은 사람들이 도

시로 몰려든 가운데 저출산, 지방의 과소화, 농업 생산 감소, 세수 약화 등 복합적인 문제가 결부됐다고 본다. 책을 옮긴 임해성 인덕대 교수는 “저자는 로마가 멸망하지 않았더라면 실제 역사에서 르네상스와 근대 이후 인류가 접하게 될 과학적 발견과 기술적 발명이 얼마나 더 빠르게 실현됐을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 추론을 전개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간다”고 평한다. <예문아카이브·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학박사·소설가>

## 독습, 책을 지적 자본으로 바꾸는 10가지 습관 운영론 지음

책을 읽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빨리 읽는 속독, 소리내어 읽는 낭독, 느리게 읽는 만독, 묵혀서 읽는 숙독, 재미있게 읽는 탐독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외에도 다양한 독서 방법이 있다. 질문하면서 읽는 문독, 훑어서 골라 읽는 선독, 손으로 읽는 수독,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읽는 연독, 뜻을 풀어서 읽는 해독 등이 있다. 책 속 지식을 내 안에 자리잡게 하는 독서법이 있다. 1% 고수들은 모두 자신만의 독습을 가지고 있다.



책을 지적 자본으로 바꾸는 습관을 소개하는 책이 발간됐다. ‘글쓰기 신공’의 저자 운영론 문학박사가 펴낸 ‘독습, 책을 지적 자본으로 바꾸는 10가지 습관’은 읽음으로써 내 것으로 만드는 특별한 독서법에 대한 이야기다. 독습은 말 그대로 읽어서 습득한다는 의미다.

저자는 무엇보다 기계적인 책 읽기, 자기과시적 독서에서 벗어나 지적이고 충만한 삶을 위한 책읽기를 권한다. 이를 위해 유용한 독서, 학습 모형은 물론이고 소문난 독서광들의 독서법 등 국내 고수들 인터뷰를 통해 10가지 독습의 의미와 효과, 실천법을 강조한다. 저자가 인터뷰한 고수들은 고두현 시인, 최효찬 자녀경영연구소장 등 책을 낸 저자이며 각 분야 전문가들이다.

“독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없이 문독(問讀)이라고 말한다. 독서모임인 ‘독습’ 회원 중에 질문하며 책을 읽은 후 변화한 30대 여성 회원이 있었다. 이전에는 책만 들면 좋았는데 문독 이후 즐리지 않게 되었다.”

읽지 않는 사람 또는 읽어도 읽지 못하는 사람은 독습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글을 읽고 스스로 배워 익히는 자가 고수가 된다. <예문·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퇴직미얌 김석지음

“퇴직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저극히 일상적인 이 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 시대. 정년퇴직,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이 일상화된 작금에 퇴직은 더 이상 남의 일도, 먼 미래의 일도 아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있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오늘날에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퇴직을 하기 위해 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퇴직을 미루지 않고 스스로 결정해 제2의 인생을 의미있게 보내고 있는 이가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한 권의 책으로 엮어냈다. 공학박사이자 정보통신기술사인 김석씨가 펴낸 ‘퇴직미얌’은 퇴직 후의 생생한 경험을 담은 책이다. ‘퇴직 미얌’이라는 독특한 제목은 ‘나는 퇴직을 미루지 않기로 했다’를 줄인 말로, 호기심을 유발한다.

저자는 KT에서 20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후 정보통신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강의와 컨설팅을 하고 있다. 그의 일은 모두 세 영역으로 나뉜다. 일의 영역에서는 엔지니어링 회사의 정보통신 감리, 가정의 영역에서는 파트타임 가정주부, 사회공헌영역에서는 교육지식 기부활동을 펼치고 있다.

저자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는 개인마다 상황과 여건이 다르므로 직장생활 하면서 퇴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나를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렇다면 퇴직을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언제 해야 하는가? 저자의 답은 간단하다. “투수마다 타자를 제압할 수 있는 자신만의 주무기가 있듯이 나만의 ‘필살기’를 찾아내고 갈고 닦아야 합니다. 필살기가 갖추어진 다음에 퇴직의 적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유심·1만4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비운의 역사현장, 아! 경교장 (사)백범사상실천운동연합 엮음

1945년 11월25일 서울 정동의 예배당. 정일형 박사는 예배당에 모인 이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했다. 광복군이었던 장준하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여기에 한 위대한 사람이 앉아 계십니다. 장차 이 민족을 이끌고 나갈 참지도자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계십니다’라는 정 박사의 말을 전했다. 그로부터 3년 7개월이 지난 1949년 6월26일, ‘그 사람’은 고대하던 자주독립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세상과 이별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혁명가이자 정치가인 백범 김구 선생이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백범 서거 70주년을 기념해 ‘비운의 역사현장, 아! 경교장’이 최근 출간됐다. 임시정부와 그 수장이었던 백범의 발자취를 담은 이 책은 항일투쟁을 펼친 27년 동안의 언론 기록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마지막 청사’ ‘최초의 남북협상 산실’ ‘백범 암살의 현장’ 등 총 3부로 구성됐다. 1945년 11월23일, 임시정부 요인들이 처음으로 조국에서 독립의 발을 딛은 곳이 경교장(당시 죽점장)이었다. 경교장은 백범이 암살 당하기까지 3년 7개월, 1310일간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였으며 백범 암살의 현장이었다.

김인수 (사)백범사상실천운동연합 대표는 지난 2001년부터 2년에 걸쳐 국립중앙도서관 등에서 경교장에 관한 자료를 수집했다. 자료가 집대성된 완성본은 지난 2003년 출간됐지만 대중에게 공개되지는 못했다. 그로부터 무려 16년이 지나 이 책은 다시 세상의 빛을 보게 됐다. 언론 보도 외에도 책에는 역사적 인물들의 증언이 수록됐다. 송남현 선생의 남북협상회의 증언과 동행기자 취재기, 광복군 제3지대장 김학규의 백범 암살 상황에 대한 회고, 백범 암살범 안두희의 육성증언 등을 함께 실었다. <멘토프레스·3만원>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FACE 메이크업은 하시면서,  
**BODY** 는 왜 메이크업을 하지 않으십니까?

4주  
흐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가능성속속장수기업  
**기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특허  
부유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신!

편안한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 GOOD!  
일본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사용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기공  
(원적외선파동)

www.aroma-life.co.kr  
**1588-2219**